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점에 對해서의 어떤 體係的인 思想, 이런것을 가지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적어도 東亞日報에서 찾아본다면 그것이 그렇게 뚜렷이 보이질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처럼 우리 民族이 시달리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억울한 일이 아니냐?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一切의 觀念밑에서 日本의 그 當時 政治하는 것, 그밖에 韓國사람이 하는 것만 보아서 안타깝게 여기고, 혹은 기쁘게 여겨서 이것을 대개 社說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이 느꼈읍니다. 그러면서 前近代的인 價値觀에 對해서, 過去의 價値觀念에 對해서는 거의 反省이 크지 않고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은 男女問題 程度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價値觀念이라는 것은 男女問題를 除外하고는 時代가 달라짐에 따라서 徐徐히 自己도 모르는 사이에 그 價値觀念이 무너졌지 實際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겠다는 어떤 思想의 背景이 있고 스스로 thinking해가지고 主張했던 點은 없지 않았는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調査라는 것은 아직도 分析 도중에 있는 것이고 상당한 難點이 있읍니다만, 대체로의 傾向을 알기 爲해서 이렇게 해보고 있읍니다. 以上 여러분의 參考에 이바지 된다면 感謝하겠읍니다.

都市와 農村의 價値觀의 比較

高　永　復

먼저 朴鍾鴻 선생님께서 價値觀의 變遷은 構造的인 差와 密接한 關聯이 있을 것이라는 暗示的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價値觀이 具體的으로 어떤 差가 있다면 그 差를 가져 오게 하는 가장 根本的인 要因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 보려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價値觀의 문제를 둘러 싸고 보통 態度 調査를 通해서 그 價値觀의 所在를 짐작하는 方式을 擇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문제는 價値와 態度라고 하는 것 自體를 좀 더 檢討해 볼 만한 餘地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價値라고 하는 것과 態度라고 하는 것과는 分離하여 생각하는 편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價値는 具體的으로 態度속에서 直接的으로 表現되는 것이라고 主張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이러한 一連의 問題도 여기서 어느 程度 解決의 실마리를 얻어 보려고 하는 意味도 包含되어 있읍니다마는, 우선 제가 調査한 結果를 簡單하게 紹介해 드리면서 이 두가지 問題를 여기서 對答드려 볼까 합니다.

昨年에 우리가 都市와 農村人의 社會的인 態度가 어떤가? 나아가서는 韓國人의 이데올로기를 近代化시키려며는 어떤 面을 가장 치중해서 생각해야 되겠

는가 하는 문제를 알아 보기 爲해서 서울市 全域을 對象으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農村을 對象으로 해서 우선 調査 對象者를 選定해야 했는데, 처음에 우리는 全 서울을 母集團으로 삼고 거기서 어떤 확률표집(確率標集)에 依해서 그 對象者를 選定하려고 했읍니다만 中間에 여러가지 事情에 依하여 地域標集(Areal Sampling)에 依해 標集을 하는 것이 가장 有利할 것 같아서 土地의 값을 基準으로 해서 各洞마다 提示되어 있는 地價에 依해서 가장 높은 地價를 가지고 있는 地域하고 가장 낮은 地價를 가진 土地를 다섯층으로 區分해서 가장 特徵的인 樣相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는 洞을 留意的으로 각기 하나씩 택했읍니다. 처음에 가장 토지 값이 비싼 地域을 會賢洞으로 보았읍니다마는 會賢洞에 가서 直接 豫備調査를 해 보니까 貧民들이 아주 豪華로운 住宅街에 隣接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所期의 目的은 達成하지 못할 것 같아서 奬忠洞을 擇하기로 했읍니다. 奬忠洞도 여러가지 雜多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 그 中에서 가장 富裕한 저택이 羅列되어 있는 地域을 選定하고 두번째의 地域으로는 신문로 2가, 광화문로 뒤에 있는 옛날 宮舍, 社宅地域을 擇하고, 세째 번의 지역으로서는 元曉路 2街에 있는 龍山 警察署 맞은 편에서 한강 쪽으로 내려가는 舊住宅地域을 擇하고, 네째 번으로는 佛光洞에 있는 新營 住宅街를 擇하고, 다섯번째로는 金湖洞에 있는 貧村地域을 擇했읍니다.

이것을 各己 100名씩 標本을 定했는데 都合 500名의 對象者 中에서 우리가 蒐集한 資料는 456名이었읍니다. 그리고 農村은 같은 質問紙를 가지고 江原道에 있는 三陟郡에 山間村落 2개, 慶尙南道 함양郡에 있는 村落 2개, 순 農家住宅단이 있는 山間村만을 擇했읍니다.

그런데 이 調査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態度의 次元이 무엇이었는가를 說明드리자면 우선 크게 보아서 前近代的인 態度와 近代的인 態度와를 確認하고 또 우리들이 政治的인 態度로서 體制 肯定的인 態度와 反對로 體制 否定的인 態度 말하자면 現實과 社會體制를 肯定하고 있는가 否定하고 있는가 하는것을 물어 보고, 또 하나 가령 우리가 고쳐야 한다면 急進的인 解決方策이 좋은 것인가? 漸進的인 改良이 좋은 것인가? 하는 세가지의 態度 次元이 設定되었읍니다.

그런데 前近代的인 것과 近代的인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意味하는 內容이 다르고 또 우리가 어떤 一定한 基準을 가지고서 이것을 調査하지 않고서는 曖昧한 面이 많기 때문에 주로 Tennis의 Geselschaft와 Gemeinschaft에서 言及된 內容 그리고 요즈음 Persons가 流行變數라고 提示하는 몇가지 前近代的인 것과 近代的인 것과의 次元을 우리가 活用하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前近代的인 것과 近代的인 것을 보기 위하여 傳統主義와 合理主義는 주로 科學的인 思考에 依하여 完全히 行動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은가를 주로 보았고, 다음으로 持續

主義와 業蹟主義의 次元에서는 身分意識이 아직도 남아 있는가 어떤가에 주로 치중했읍니다. 그리고 세째번으로는 派閥主義와 普遍主義를 보았는데 派閥主義는 自己가 屬해 있는 血緣的인 혹은 地緣的인 혹은 特定集團의 利益을 큰 社會利益 보다도 앞 세우느냐? 혹은 그렇지 않고 보다 큰 社會의 利益을 주로 하느냐 하는 式으로 次元을 檢討했읍니다. 그리고 넷째번에는 權威主義와 平等主義인데 이것은 人間關係에 있어 權威的인 上下關係에 對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 들여야 될 것인가에 對한 事實을 알고저 하는 次元이었읍니다. 이렇게 前近代的인 것과 近代的인 것을 다시 4가지로 區分해서 各己 次元마다 傳統主義와 合理主義의 8개의 문항을 붙였읍니다. 도합 32개의 問項을 얻었는데 勿論 豫備 調査를 한 것입니다마는, 여기 대해서 具體的인 것은 사회학논총에 이것이 言及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簡略하게 설명하겠읍니다.

이렇게 32개 問項 중에서 사람들에게 態度調査를 한 結果가, 원래 豫備調査에 있어서는 각기 네가지 次元에서 밝혀져 나온 32개의 問項이, 비슷한 反應을 보이게끔 되어 있었는데, 實地 서울 사람들에게 이 調査를 해 본 結果 各己 다른 反應을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곧 어떤 사람은 傳統的인 것에 더 많은 反應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하여 또 어떤 面에서는 業蹟的인 것이 더 많다는 式으로 態度의 一貫性이 보이지 않는 面을 相當히 많이 發見하였읍니다. 그래서 傳統主義, 持續主義, 派閥主義, 權威主義에 각기 該當하는 項目에 應答한 比率을 통계잡아보니까 결국 32개의 문항 중에서 전부 近代的인 즉 合理主義的이고, 業蹟的이고, 普遍的이고 平等的인 面에 對答을 한 사람이라며는 32點을 받고, 反對로 傳統的이고 持續的이고 權威的인 面에 전부 대답한 사람이라며는 —32點을 얻도록 문항이 構成되어 있었는데, 平均해 보니까 傳統主義가 제일 點數가 낮고 그 다음이 持續주의, 派閥主義, 權威主義라는 順序로 되어 있읍니다. 숫자는 Print에 提示되어 있지 않으나 權威主義가 5점 前後이고, 派閥主義가 4.78, 持續主義와 傳統主義가 約 3점, 이런 程度의 비율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解釋하기를 原來 近代的인 것이라면 모두 다 合理的이고 普遍的이고 平等的인 思考를 가져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唯獨 普遍主義와 平等主義에만 더 많은 近代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 合理的이고 業蹟的인데 對해서는 보다 前近代的인 面으로 더 많은 反應을 보이고 있다 하는 事實은 아마 우리들의 推測으로서는 우리나라가 8.15以後 家族經濟가 차차 所謂 近代的인 產業體制로 變形하는 過程에서 過去에 우리들이 섬겼던 여러가지 保守體系가 現代社會에서는 자꾸 계속해서 瓦解되어 가고 있다 혹은 새로운 保守體系로 再編成되어 가는 過程을 우리들 自身들의 社會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家族이외의 boss를 하나의 社會的인 leader로 모셔야 하는 必然性에 直面하였다고 하는 事實이 즉 派閥的인 面을 차차 崩壞시키고, 나

아가서는 새로운 人間——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人間關係속에 自由롭게 우리가 參加할 수 있다고 하는 機會가 어느 程度 許容되었다는 面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解釋을 내려 볼 수가 있읍니다. 이에 對해서 傳統主義와 持續主義가 比較的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個人的인 行動의 次元에 屬하는 일이 아닌가 즉 아직까지 우리가 사람을 評價하는데 있어서 어느 程度 身分的인 基準을 따지고 또 傳統的인 思考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構造的인 어떤 與件이 아직까지도 個人의 生活 自體에 까지 浸透하고 있지 않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集團을 바꾸고 새로운 boss밑에 일을 하면서도 個人이 가지고 있는 思考에 있어서는 여전히 身分的인 評價, 그리고 非科學的인 이런 思考를 그대로 가지고 옮겨간다고 하는 이런 式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가 생각했읍니다. 이것은 좀 더 考慮해야 할 앞으로의 문제입니다만 우선 이른 바 結果를 얻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32개의 設問 中에서 一貫性이 있는 態度만을 다시 한번 골라 보기로 하였읍니다.

여기서 우리가 相關係數라는 것을 使用했읍니다마는 32개의 問項을 제 각기 交錯시켜서 prospect tabulation을 만들어서 그 聯關度가 많은 次元을 各己 項目에 다시 말하면 傳統主義 問項에서 둘, 그리고 持續主義, 派閥主義, 權威主義 問項에서 各己 둘씩을 골라내서 그 여덟가지에 對한 사람들의 反應比率을 우리가 于先 地域別로 統計내 보았읍니다. 表1에 提示되어 있는 것은 奬忠洞이 16.4 그리고 신문로가 18.0 元曉路가 20.7 佛光洞이 19.0 金湖洞이 26.0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느냐 하면 前近代的인 問項에 對答한 사람의 比率이 16.4니까 83.6점 정도가 전부 近代的인 問項에 對答을 했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읍니다. 奬忠洞이 제일 近代的인 면이 強하고 金湖洞이 제일 弱한데 그 中間에 元曉路와 佛光洞이 바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佛光洞의 新營 住宅에 사는 사람들은 요즘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層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좀 더 近代的인 면을 가지고 있을 만한 理由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이에 對해서 都市 總計와 農村의 總計를 比較해 보며는, 都市는 20%가 前近代的인 反應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農村은 35.5%의 反應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나라가 完全히 近代化되어 있다든지 혹은 아주 近代化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아까도 잠간 말씀 드렸읍니다마는 全體의 總平均이 5점 혹은 4점을 上廻한다는 程度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32점이 完全히 近代的인 最大値인데 우리나라 특히 서울 市民의 平均이 5점 程度 밖에 오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 까지도 前近代的인 面이 완고하게 우리들의 生活을 支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全體的으로 보면 近代化 되어 가는 면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은 짐작은 하겠

읍니다마는 그런 比率을 前提로 해 놓고서 그 中에서 우리가 地域別로의 分布 都市와 農村을 비교해 보면 勿論 農村쪽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地域別의 分布만 가지고서는 滿足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전부 다 합쳐서 都市에 있는 住民들을 敎育別로 나누어 보았읍니다. 敎育別로 나누어 보니까 大卒, 中卒, 小卒, 國文解讀의 順序로 되어 있는데 역시 교육이 높은 사람 일수록 대체로 보아 近代的인 性向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하나 注目할 것은 高卒生이나 中卒生보다도 大卒生이 조금 前近代的인 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지 몰라서 職業分類의 再分類를 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職業을 어떻게 分類해야 하는 것도 相當히 問題가 크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가지 方法으로 試圖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職業定人員을 5가지의 職業分類法을 가지고 全部 거기다 包含시켜 보면 어떤 一慣性을 보여 주지 않기 때문에 즉 우리가 調査한 400 몇명의 사람을 전부 5分類로 했다든지 해서 職業을 5分類 속에 전부 집에 넣어 보니까 一慣性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가장 特徵的이라고 볼 수 있는 職業의 業種에 從事하는 사람만을 따로 別途로 추려서 그 職業에 있어서의 反應比率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大企業主, 自由專門職, 中流官吏職, 事務職, 熟練勞動, 單純勞動의 職業分類를 于先 暫定的인 基準으로 삼았는데 이외에도 많은 職業分類에 들어가는 사람도 勿論 있읍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다 除해 놓고 大企業主에 屬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各己 職業에 該當하는 사람들이 反應한 비율을 보니까 大企業主가 18.8, 自由專門職이 19.6 中流官吏職이 12.9, 事務職이 18.2, 熟練勞動이 22.4, 單純勞動이 40.2로 나와 있읍니다. 여기서 보면 역시 自由專門職이 勿論 職業種類로 봐 가지고 보통 우리가 上位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職業種이 비교적 近代的인 面이 強하다고 하지만 여기서도 보면 自由專門職이 大企業主 보다는 前近代的인 면이 있읍니다. 自由專門職이라면 보통 우리가 辯護士, 醫師, 其他 敎授 이런 層을 우리가 指稱했읍니다마는 이런 層이 大學卒業生이고 보면, 大學卒業生이 아닌 사람은 이 職種에 就業하기 어려운 職種이므로, 역시 中·高卒 보다는 大卒이 여전히 前近代的인 要素가 強하다고 하는 것이 어느 程度 짐작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大學敎育이랄까, 勿論 이들은 全部가 세대주이기 때문에 大部分이 30代 40代가 많았고 또 이런 사람들의 敎育은 過去에 받은 敎育이니까 아마 過去에 받았던 大學敎育의 탓인지 혹은 其他 다른 要因이 介在 했던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튼 大學卒業生이라 해가지고 반드시 近代的인 것은 아니다 하는 結論을 얻을 수가 있읍니다.

다음에 表4에 나와 있읍니다마는 生活程度의 差를 가지고 比較를 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는 여기다 收入을 記入하도록 했읍니다마는 收入

을 記入한 것을 보고 統計를 해 보니 收入別로 一慣性 있는 態度가 나오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아마 虛僞 收入을 記載했으리라 생각해서 따로 마련된 설문에서 自己가 어느 層에 屬하느냐 다시 말하면 아주富裕, 富裕한 편, 普通, 가난한 편, 아주 가난이라 해가지고 이중에 어느 카테고리에 屬하느냐 하는 것을 自己評價를 시켰었읍니다. 그것을 가지고 調査를 해 보니까 역시 좋은 一慣性을 나타내진 않았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졌던 設問中에서 面接者 즉 調査者가 그 집안에 여러가지……연령별로 보면 역시 젊은 層일수록 近代的인 傾向입니다. 그러나 두드러지게 20代라고 하여서, 혹은 30代라고 하여서 다른 것에 비하여 월등 近代的이라고 하는 연령별의 變數를 인정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대체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近代的인 態度도 보통 우리가 價値評價를 함에 있어서 職業이나 收入이나 혹은 敎育을 가지고 따지는데, 우리는 이 調査를 通해서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構造的인 差異, 構造的인 與件에 價値가 充分히 影響을 받고 있다고 하는 事實을 알아 볼 수가 있읍니다.

둘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많은 體制肯定的인 反應을 하고 있는가? 體制否定的인 反應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서는 이상하게도 都市나 農村이나를 莫論하고 體制肯定的인 것도 體制否定的인 것도 아닌 曖昧한 態度가 始終一慣 나타났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기를 아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體制를 否定한다고 하는 생각이 一種의 타부視 되어 있는것 같은 雰圍氣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本人의 態度를 充分히 나타내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反證으로 우리가 直接的으로 어떻게 빨리 變革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물었을 때는 構造的인 變差가 如實히 反映되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도 全 問項에 걸쳐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自己와 直接 關聯있는 몇가지 問題에 對해서만 이런 反應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都市와 農村間에 있어서 뚜렷한 變差가 나타나는 項目을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은 두가지 項目이 있었읍니다. 하나는 勞動組合이 세가지 條件을 내 걸고 鬪爭을 했을 때에 企業主가 한가지 條件만 들어 준다고 하는 境遇에 세가지 條件이 貫徹될 때 까지 鬪爭을 하여야 하느냐? 한가지라도 우선 수락하고 보느냐 하는 質問과,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貧富의 差가 많은데 그 貧富의 差를 없애는데 있어서 사람들은 싸워서 이 貧富의 差를 없애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徐徐히 貧富의 差를 없애도록 努力하느냐? 하는 質問項目에 대해서 表에 나타나 있는 反應을 보여 준 것입니다. 表6에서 부터 繼續하여 이것이 나타나 있읍니다마는 먼저것이 勞動組合 關係이고, 둘째번 것이 貧富의 差의 문제입니다. 둘 다 거의 비슷한 一慣性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地域別로 보면 漢思洞이 제일 이 問題에 對해서는 反急進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고 이에

對해서 金湖洞 혹은 農村사람들은 比較的 強한 急進性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問題視해야 될 것은 金湖洞의 境遇 63.0으로 나타나 있는데 나머지 37%는 急進的인 것에 對答한 사람이라고 보겠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50% 이상을 上廻하니까 아주 완강한 急進的 態度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어느 程度의 比較的인 뜻이 여기에 包含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敎育別로 보더라도 大學 卒業生일수록 急進的인 데에 反對하고 있다. 그리고 敎育程度가 낮은 사람일수록 急進的인 態度에 찬성하고 있다 하는 것은 아마도 敎育이 鬪爭心을 弱化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表 8에 依하면 生活程度의 差도 여전히 富裕層일수록 反急進的인 態度의 反應을 많이 보여 주고 있고 生活이 낮은 사람일수록 急進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읍니다. 직업을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大企業主, 自由專門職, 中級官吏職, 事務職 中에서도 大企業主가 훨씬 反急進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고, 自由 專門職은 여기서 비로소 자기의 本分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89.7로 序列順 위로 들어앉고 있읍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대체로 젊은 層이 急進的인 面이 많다고 하겠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強한 面은 물론 없읍니다. 勿論 學生層이라던지 一般 혹은 世帶主의 位置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態度調査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一般性은 없지만 우리가 세대주에서 얻은 世代別로의 統計에 나타난 結果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읍니다.

結論的으로 都市사람들은 대단히 近代的인 態度를 가지고 있다. 反對로 都市사람들은 比較的 反急進的인데 農村사람들은 前近代的이다. 우리나라에 人口比率이 農村人口가 壓到的으로 많다고 합니다마는 적어도 우리나라 全體的인 人口의 하나의 態度를 혹시는 價値를 綜合化 시킨다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前近代的인 面이 많고, 同時에 이 前近代的인 것과 結合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튼 急速히 무엇인가 變革을 願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특히 이 變革을 원하고 있는 層은 敎育程度가 낮고 生活程度도 낮고 職業도 下位에 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變革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暗示해 주는 結果라고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 드릴 것은 態度와 價値가 정말 그대로 態度속에 反映되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심스럽다는 問題를 提起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릴 때 權威主義的인 것과 派閥的인 것이 좀 점수가 많았고, 이에 對하여 傳統的이고 持續的인 것이 좀 弱했다고 그랬는데 다시 말하자면 傳統的인 것이 더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사람의 態度라고 하는 것은, 태도가 어느 한 面에서 부터 變해 간 것인지 혹은 態度 全體가 변해간 것인지, 그 中에서 자기가 好意的이라고 할까 우리에게 有利한 것만을 밖으로

反應해 보이는 지는 아직까지 完全한 結論을 얻지 못 했읍니다. 보통 우리는 文化 變動論에 依하더라도 物質文化가 앞서고 그 다음에 精神文化가 뒤 따른다 그랬는데, 말하자면 이것을 通해서 우리는 態度가 어느 程度物質文化보다도 뒤 늦는다며는 벌써 우리들의 物質的인 構造는 相當히 近代化 되었으리라는 짐작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非物質的인 文化가 뒤 늦는다 할지언정 非 物質文化 속에 있어서도 역시 몇가지의 次元을 區別할 必要性이 있지 않을가, 다시 말하면 文化를 分類할 때 非物質文化 속에 行動文化와 精神文化를 區分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精神文化와 行動文化가 어느 쪽이 빨리 變化하느냐에 있어서 아직까지 確信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權威的인 것과 派閥的인 것은 상당히 우리들에게 強調되어 있는 어떤 精神的인 影響을 받았으며, 傳統的이고 持續的인 것은 相當히 行動的인 面에 치중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精神的인 文化가 行動的인 文化에 앞서서 발전하는 徵兆를 여기서 찾아야 될 것인지 않아야 될 것인지는 앞으로 좀 더 檢討해볼 생각입니다.

討 論

<司 會>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곧 이어서 討論에 들어 가겠읍니다.

<車 柱 環>

저는 文學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이러한 科學的인 研究方法에 상당히 疏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討論人의 하나로서 불려나온 것은 제가 생각컨데 지난 2·3년 동안 제가 우리나라의 歷代文集을 좀 많이 다루는 機會를 가졌고, 또 그 동안에 儒敎의 實踐的인 面을 상당히 잘 闡明하였다고 하는 四書를 飜譯하고 하여 여기 儒敎의 價値觀이니 하는 말이 나와 제가 여기 불려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實際로 나오니까 제가 여기서 討論을 提起할 만한 契機를 주는 것은 네분 가운데서 후에 말씀한 세분은 거의 제가 討論할 問題를 提示해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科學的인 統計에 依한 調査는 제가 問題를 提起할만한 아무런 根據도 없고, 知識도 없고 또 그런 訓練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읍니다. 다만 먼저 朴鍾鴻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미 그걸 듣고서 많이 배운 點도 있지만, 또 그것이 統計라든지 科學的인 方法을 通한 所産이 아니고 깊은 修養과 또 學術研究를 通해서 울어난 人格을 通해 하신 말씀이 주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對해서 저로서 몇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지 않을가 해서 감히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端的으로 말하면 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壽」「福」의 價値觀입니다.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복되게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方向이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方法이냐를 시대를 따라 죽 그 變遷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出發에 있어 人間의 慾求에 基本을 두어 展開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나 首肯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壽」 「福」을 享有하기 위한 表現이라고 할까 이런 面에서, 맨 처음에 原始時代에 祭天이라든지, 샤마니즘 이런 것을 通해서 말씀하신 다음 우리나라의 佛敎와 儒敎 이것에 들어가는데, 佛敎보다는 儒敎가 더 盛했고 支配的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連結시키는 데 있어서는 家族이 中心이 됐다. 그리고 거기서 農業이라는 生産과의 問題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原始 儒敎에 있어서의 基本的인 姿勢, 이런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首肯할 수 있읍니다. 다만 여기서는 제가 文集을 읽는 다든지, 이런 데서 느낀 것은 여기하고는 약간 差異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儒敎라는 것은 原來 아까도 朴鍾鴻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孝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그 孝와 同時에 悌라고하여 孝는 縱的인 것이라고 하면 橫的인 것이 悌라고 하여 심방변에 쓰고 있읍니다. 孝라고 하면 위에서 부터 내려 오는, 悌라고 한다면 兄弟, 朋友, 社會, 이렇게 나가는 것이 결국 儒敎의 基本이 되는 方針이라고 할 수 있는데 朴鍾鴻 선생님께서는 孝를 基本的인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孝子가 自己동생을, 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解釋할 수 있지만 그 基本的인 立場에서 본다면 儒敎는 언제든지 孝하게 되면 반드시 悌라는 것이 따라 다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儒敎를 理解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머리에 넣지 않으면 안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이 儒敎라는 것은 한 特徵이 있는데, 아까 朴선생님이 人間關係를 主力해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렇게 人間關係에 치중했다는 것은 儒敎에 대한 理解가 徹底하신 것을 理解할 수 있읍니다. 人間關係란 結局 秩序를 要求하는 것인데 이것은 社會安全 乃至는 그 構成된 社會가 變動을 안 가져오는 즉 保守的인 것이라는 特徵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安靜된 社會에는 언제든지 儒敎的인 것이 支配的이고, 混亂을 가져 올 때 戰亂時에는 儒敎의 精神이 社會에 支配的으로 나타나지 않는 다는 것을, 歷史를 들추어 보면 상당히 뚜렷히 認識할 수 있읍니다.

또 文集을 通해서 느낀 것은 儒敎라는 것은 언제든지 保守性이 있기 때문에 사회질서를 要求하는 것이 進步를 要求하는 것보다 더 強하기 때문에 그 執權者 乃至는 支配層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便利한 敎訓이고 便利한 方法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韓國 知識人들을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벼슬한 사람하고 벼슬 안한 사람하고 두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벼슬 안한 사람이 儒敎를 버렸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고 벼슬한 사람이라고 儒敎만

을 내세운다고 까지는 말 할 수 없지만 대체로 보아서 安靜된 社會를바라는—같은 狀態를 維持하기를 바라는 執權者 乃至는 支配者의 立場에서의 便利한 面이 儒敎를 상당히 오래 유지했다는 그런 면을 반드시 家族과 農業에만 連結시키지 않고 그런 면에도 言及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해 보았읍니다.

또 한가지 김경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儒敎의 價値觀에 連結되는 것이지만 "儒敎價値觀의 樣態"라는 데에서 金 선생님이 취하신 text는 朱子라고 하는 사람이 編纂한 小學이라는 册을 주로 하셨는데, 옛날에 제가 어른들한테 들은 바에 依하면 이것은 老人을 爲해서 編纂한 册이라는 것이야요, 아들은 하여튼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편히 주무셨읍니까 그리고 저녁이 되면 편안히 주무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괴롭다고 생각만 하면 손이 오도록 이렇게 老人에게 便하도록된 책이라는 거야요, 우리가 읽어 보아도 역시 前 世代를 爲해서 奉仕하도록 編纂된 즉 젊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進步的이고 자꾸만 破壞的으로 나가는 것을 抑制하도록 編纂된 책인데 이것이 반드시 儒敎의 根本的인 精神과 思想을 實踐하는 全體라고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小學을 우리 先祖들이 修身敎科書이상으로 道義교과서 以上으로 많이 읽고 반드시 어린아이 뿐 아니라 어른들도 그것을 平生을 두고 硏究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것을 우리가 小學을 通해 본 儒敎價値觀의 樣態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首肯할 수 있지만, 儒敎는 시작된 것이 孔子이래로 수천년이 되기 때문에 儒敎라고 해도 그 동안에 여러가지로 形態를 바꾸었다는 것을 理解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世代에 儒敎에 對한 解釋이 나오게 되면 그러한 解釋이라는 것이 첫번에는 精神狀態까지 支配하고 實質行動에 있어서도 여러가지로 指導的인 役割을 했었지만 그것이 相當한 時期를 지나게 되면 形式化해서 그 形式이라는 것이 마치 요새 서양사람들이 어린애를 낳게 되면 敎會에 가서 이름을 짓고, 結婚時에도 거기 가서 結婚式을 하고, 죽고 나서도 거기서 葬禮지내고 하는데 그치는 것과 비슷하게 오히려 그 보다 더 못하게 形式化하는 傾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儒敎라고 하지만 過去 우리나라에서 朱子가 解釋한 儒敎를 純粹한 儒敎라고 받아들인 그것이 반드시 儒敎의 根本精神에 꼭 合致된다고는 理解하려고도 하지 않고, 理解하기도 相當히 어려운 일 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世界各國에서 儒敎에 對한 批判을 하기 爲해서 相當히 많은 時間과 努力을 들이고 있는데, 역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면에 注意를 기울이지 않고 儒敎라면 막연하게 「儒敎」하고 나와 대개 朱子學이 支配的인 儒敎 解釋으로 받아 들여졌기 때문에 그랬지마는 그러한 것을 檢討하지 않은 것이 한가지 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이것을 흠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면에 더 努力을 해서 檢討를 加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

게 생각해 보았읍니다.

주어진 時間이 다 지나서 끝으로 한가지 言及해 두고 싶은 것은 朴鍾鴻先生님께서 맨 끝에 價値觀에 關한 말씀을 하셨는데, 價値觀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셨어요, 그래 첫번에 말씀해 주신 것은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살 수 있다는 것은 죽기 爲해 나온 것은 모든 것이 다 共通이니까. 우리가 살기 爲해서 사는 것이니까. 다만 거기에 添附해서 말씀하신 것은 '內面으로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가지가 完全히 結合한 것이 結局은 價値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얼핏 생각나는 것은 內面으로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는 데 對해서 입니다. 이것은 儒敎에서 論語에 나오는 말입니다만 「內省不懼」라, 속으로 自己를 살펴 보아도 자기가 부끄럽지 않다. 이러한 말이 있는데, 이것이 곧 '내면으로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약간 느껴졌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朴鍾鴻 선생님께서 指向하시는 살 수 있는 것과 同時에 內面的으로 부끄럽지 않은 것이란 결국 基本的으로 따져 보면 儒敎에서 追求하던 儒敎의 基本 精神과 어떤 것이 矛盾이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餘地가 있지 않을가 이렇게 느껴 보았읍니다.

거기에 附帶되어서 朴鍾鴻 선생님 말씀 가운데서 가장 感激하고 느낀 점에 對해서 얘기 하겠는데 「君子 必愼其獨」이라 君子는 반드시 그 홀로 있을 때에 삼가야 한다. 이것은 지금 西洋에서 한 때 流行하던 實存主義에 絕對的인 個人, 이와는 달리 늘 社會와 自己以外의 다른 사람과의 聯關下에서의 個人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相當히 進步的이다 도리어 더 앞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參酌해서 생각한다면 朴鍾鴻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일러 주신 變遷 끝에 우리가 設定해야 할 價値觀의 方向을 일러 주신 것은 결국은 儒敎的인, 基本的으로는 儒敎的인 價値觀을 일러 주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았읍니다.

이것은 絕對로 朴鍾鴻 선생님을 攻擊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朱子가 解釋한 儒敎만이 純粹한 儒敎라고 생각하여 오던 先入觀을 버리고 原始的인 儒敎 또 過去의 사람들의 解釋에 依하지 않고, 우리가 直接 原典에 들어가서 이해할 수 있는 儒敎, 이것을 더 徹底히 理解할 必要가 있지 않은가?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前近代的이라고 또 保守的이라고만 批判할 수 없는 우리에게 指導的 理念을 줄 수 있는 무엇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우리에게 暗示를 주지 않는가? 朴鍾鴻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暗示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읍니다. 감사합니다.

<李 海 英>

時間도 많이 가고 나 역시 빨리 끝내고 가야 할 것 같아서 朴鍾鴻 선생님 말씀에 대해선 車先生께서 대개 말씀하셨으니까 전 省略하겠읍니다.

그리고 討論 題材보다도 나머지 세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느끼고 배운 것에 대해서, 또 疑問點에 對하여 말씀 드려 볼까 합니다.

세분 모두 우리나라의 價値觀에 對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時間의 制約이 主要原因이겠지만 한가지 疑問으로 생각하는 것은 所謂 價値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對한 Operation definition 程度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勿論 價値에 對해선 朴鍾鴻선생님께선 概括的으로 맨 처음에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補充이 된다고 생각했읍니다만 적어도 社會學에서 價値라고 할때, 또 社會學에서 價値라는 것을 간단히 얘기하기 困難하니까 '내 硏究에 있어서의 價値라는 것은 이런 이러한 것을 意味한다,는 程度의 言及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읍니다.

둘째로 제가 느낀 것은 李萬甲 선생과 金璟東 先生 두 분의 연구 對象이 所謂 內容分析(content analysis)인데 內容分析이란 것은 간단히 말씀 드리면 제가 理解하기에는 一定한 文章이면 文章을 몇개의 分析하고싶은 單位로 나누어서 그것을 결국 量化하는 것, 숫자로 그 頻度를 表示하는 것이 主가 되겠읍니다. 그런데 그 內容分析 一般의 弱點이라고도 생각되는 것이고, 內容分析으로서 어쩔 수 없는 點이라고도 생각되는데 一端 unit로 나누어서 숫자로 옮겨 놓다가 자칫하다가는 그 文章 全體의 context와는 전혀 遊離된다고 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文脈, 가령 社說이면 社說의 文脈과 거기 나오는 unit로서 集計된 것과는 거리가 좀 있게 되지 않나? 그러한 것은 아까 金璟東 先生께서도 言及하셨는데 가령 人道主義 이것으로서 몇번 나왔다, 人道主義가 內容이 어떠냐? 그것은 小學에 있어서의 人道主義가 다르고 修身 道德 敎科書의 內容이 다르다는 것이 純全히 숫자로만 어떻게 나왔다고 하면 結局 文脈과는 떨어지는 숫자는 나오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content analysis의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따라서 오늘은 時間이 없어 表만 그대로 썼다고 하여도 論文으로 作成할 때는 이 點에 注意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李萬甲 先生님의 社說調査에 對해서는, 特히 新聞社說의 內容分析에 있어서는 時代的 背景을 빼 놓고서 그냥 量化만 하여 가지고는 社說의 本旨와는 떨어지는 印象을 읽는 이들에게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論文을 作成하실 경우에 特別히 注意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가령 한 例로 제게 이런 경험이 있어요. 昨年이라 생각되는데 美國의 어떤 大都市의 한 新聞에 社說로 '女子들은 이젠 가정으로 돌아가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社說이 나왔어요. 만일 이것을 content analysis로서 어떤 unit로 나누어 가지고 '女子의 家庭復歸' 이런 것을 하나의 題目으로 써 놓는 다면 美國社會가 별안간, 지금 말씀하신 儒敎社會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女子는 內助之功이나 하고, 바깥에 나갈 必要가 없고, 男子는 안에 들어가서 바깥의 이

야기를 하지 않고 女子는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않고 하는 式의 社會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table에 나오는 대로 認識하기 쉬운데 그것은 美國에 있어 女子들이 하두 leisure time을 가지니까 자꾸 就職하게 되고, 經濟的인 理由에서도 就職을 하게 되는데, 그것 보다도 美國의 經濟라는 것은 당분간 繁榮을 계속한다. 헌데 女子들이 자꾸 나감으로써 結局 靑少年의 不良兒, 이것이 美國社會의 큰 두통거리가 되어 있고, 同時에 automation이 자꾸 進行됨으로써 男子 失業者가 자꾸 늘어요. 黑人, 技術없는, 그냥 그러니까 美國선 高等學校 卒業程度만 가지고는 어디가서 名銜도 못 내놓을 狀態로 되어 있는데 그런 意味, 저런 意味 다시 말하면 지금 美國社會——高度로 發展된 資本主義下에서 女子가 나감으로서 빈 時間에 아이들은 자꾸 不良化 한다 또 同時에 automation 같은 것이 進行되는 것도 男子의 就職率이 자꾸 낮아진다. 失業率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女子가 벌지 않드라도 美國의 家庭生活이 破壞되는 것이 아니니까 此際에 집으로 돌아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意味로 社說을 쓴 것인데 이것을 그냥 content analysis해 가지고 '女子의 家庭復歸'란 Item으로 적어 놓으면 社說 全體의 context와는 떨어져 遊離되기 쉽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런 것은 Interpretation의 問題이지만 또 同時에 content analysis의 一般的인 위험성이니까 그런 點에 操心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 한가지 例로서 東亞日報 社說에 가령 近代的인 問題에 對해 別로 言及이 없었다. 바꾸어 말하면 그 當時로서 그 程度의 것만 하는 것도 큰 勇氣가 必要하지 않았는가? 하니까 社說같은 것은 特히 時代的 배경을 念頭에 두시고 論文을 쓰시면 보다 効果가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느꼈읍니다.

셋째로 金璟東씨 것은 問題가 Sin Lickert Scale이란 自體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여 여기 계신 분이 다 알아야 이 硏究의 結果가 좋으냐 옳으냐 나쁘냐 혹은 結果가 妥當한 것이냐 이런것이 論議가 될 性質의 것이라고 합니다만 또 이 Lickert Scale에 關해서는 社會學關係 다른 모임에서도 金璟東씨가 한번 發表하신 일도 있고, 時間 關係上 여기서는 省略합니다만 요전에 다른 모임에서 나온 結論을 여러분께 紹介하면, 'Lickert Scale을 가지고 一般性을 따질 때 다시 그 Lickert Scale을 경과하여 또 한걸음 들어 갈 때 좀 더 正確한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結論이 나온 것이라 기억합니다만 하여간 Lickert Scale 自體는 다른 論文에 곧 發表될 것이니까 여기서는 省略하겠읍니다. 다만 한가지 질문——interview할 때 相對方이 내놓는 질문의 Wording이라고 할까 內容이라고 하는 것이 이 方向의 硏究에서 굉장히 重要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요 전번 모임에서 느꼈읍니다.

마지막으로 高永復 先生님 것에 關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거기에 對해서 크게 무엇이라 討論을 提起한다든가 그런것은 없읍니다마는 또 高先生 自身도

마지막에 잠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시 意識의 變化하고 行動의 變化 이것은 識別하기 퍽 困難한 것이나, 一般的으로 意識의 變化가 앞서고 行動의 變化가 뒤 따른다는 것이 常識的으로 느껴지는 問題인데, 그런 點에서도 近代化 總點數가 32點인데 都市에 있어서도 近代化의 傾向이 5점 밖에 안 나온다 이런 것은 어느 程度 우리에게 숙을 주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勿論 高永復 先生것이 的確하게 그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는 것은 別問題로 치더라도 그리고 우리들 周邊을 보더라도 5點 밖에 되지 않는 것이 妥當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가령 結婚問題 같은 데에서 戀愛至上主義를 意識的으로 많이 主張하는 사람이 있지만 調査해보면 대개 仲媒 結婚을 贊成한다는 答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입으로는 戀愛至上主義니 이렇게 나오지만, 하여간 이것도 앞으로 더 研究할 문제이니까 여기서 뭐라고 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가지 大學卒業生이 中·高卒業生보다 더 保守的이다, 前近代的이다. 이런 結果가 나왔는데 이것은 結局 解釋의 問題가 아닌가. 왜냐하면 高先生께서 調査한 大學卒業生의 相對라는 것은 過去의 大學을 卒業한 사람들, 年齡的으로 보아서 40代가까운 사람 40代 以上, 다시 말하자면 修身教科書로 教育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오늘날의 大學生 혹은 大學卒業生과는 區別하여 생각해야만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interpretation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以上 내가 오늘 발표하신 것을 들으면서 느낀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社會學의 研究에는 여러가지 方法이 있읍니다. 어느 方法이 가장 完全한 方法이다 이런 것은 말할 수 없어요. 또 무엇을 研究하느냐 하는 研究對象에 따라서 그때 그때 方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말할 것은 오늘날 社會學 研究의 方向이 이렇게 단순히 협연적인 데서 떠나, 科學的인 量的인 方法으로 옮아 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社會學의 發展을 爲하여 대단히 기쁜 일이라 하겠읍니다. 同時에 量的인 發表가 늘어 감에 따라서 量的인 研究의 限界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 주시면 좋겠읍니다. 왜냐하면 숫자的으로 몇%이다. 이것이 絕對的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야요. 하나의 傾向을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思索的인 연구를 벗어나서 量的으로 자꾸 把握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社會學의 發展을 爲해서 퍽 좋은 傾向이고 同時에 그런 方法으로 나타나는 숫자가 絕對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이다.

<司 會>

여러분 오랫동안 추우신데 들어 주셔서 感謝합니다. 이것으로 第3回 東洋學 Symposium의 첫날을 끝마치겠읍니다만 司會者의 立場으로서 한 一分만 말씀 드리겠읍니다.

價値의 硏究라는 것이 學問上으로 보아서 過去에 支配的인 地位를 가져 왔던 歷史主義와 制度主義에 對한 하나의 報償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事實입니다. 우리가 심포지움을 通해서 느낀 한 結論이란 것은 價値가 어떻게 具體的으로 變遷하여 왔나 하는 것을 量的으로 여러가지 取扱되어 온 問題가 있고 다만 高永復氏에 依해서 價値의 構造 聯關性에 關해서 言及을 했었읍니다. 말하자면 價値라는 것이 細分되어 硏究되면 될수록 그 價値의 多樣性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價値觀의 硏究가 結局 價値의 多樣性을 指摘하고서 끝낸다는 그것은 어떤 뜻이 있을가 하는 면에서, 李海英선생께서 質的인 面에 있어——質的이라고 表現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읍니다만——다른 硏究方法이 있으리라는 것을 指摘하셨읍니다.

日前에 價値觀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弄談으로 價値觀이란 貨幣價値와 같은 것이다. 貨幣價値란 것이 어떻게 만들어 지느냐. 이는 需要와 供給의 機能에 依하여 만들어 진다. 需要와 공급이란 무엇이냐? 말하자면 生産 構造를 供給이라 할 수 있다면, 人間的인 欲求 이것을 需要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가지 關係가 社會科學에서 基本的인 問題인데, 어느 쪽을 擇하느냐는 여기에서 學問的으로는 歷史主義的, 制度主義的 approach가 있을 수 있을 것이며, 혹은 또 價値觀的 approach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需要와 供給이 歷史上에 있어서 具體的으로 언제라도 均衡狀態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偏重關係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demand가 强하므로 供給이 需要를 따르지 못할 때 tension이 나올 것이고, 供給이 强하고 需要가 따르지 못할 때 이것도 unvalance가 생길 것입니다. 이 unvalance는 단순히 unvalance로써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좀더 構造聯關性으로 社會階層과 關聯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問題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 制度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問題까지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價値觀을 通해서 構造的인 문제와 關聯시키는 態度가 具體的으로 發達됨으로 말미암아서 價値 一邊倒를 止揚할 수 있었고, 또 過去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社會科學의 어느 失敗, 어느것이 完全한 缺點을 면치 못한 점으로서 歷史主義라든지, 制度主義의 一邊倒를 止揚할 수도 있는 問題가 현재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社會科學의 問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같은 面에서 우리가 要求하고 싶은 것은 價値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調査者들이 價値恣意的 立場에서 아무리 分析해 보아도 우리들에게는 價値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永永 理解되지 못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읍니다.

이와같은 면에서 우리 價値觀의 硏究者들이 自己의 價値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具體的으로 發表함으로 말미암아서 眞正한 意味에서 價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對한 反對가 提起됨으로 해서 價値가 더 發展될 수 있지 않을가, 말하자면 學問的인 價値觀의 硏究 그 自體가, 결국에 있어서는 어느 限界點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배운 것은 巨大한 收穫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11月 7日

<司 會>

오늘 심포지움의 主題는 李朝後期의 西洋 認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西洋認識은 다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만큼 여러가지 面에서 깊은 認識을 갖고 있을 뿐아니라, 社會, 經濟, 文化의 모든 면에 있어서 일부러 西洋을 意識하지 않더라도 거의 無意識속에도 모든 것이 西洋에 依해서 作用하고 있다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西洋에 對한 認識과 理解는 언제부터 우리에게 깊게 되었으며 또 그 始初에 있어서는 어떠한 方式을 通해서 어떠한 性格을 갖고 인식하게 되었는가를 이번 심포지움의 主題로 擇했읍니다.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興味있는 問題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式으로 西洋文化를 接觸하고 받아 들이고 하는 문제에 對해서 아직도 硏究하고 論議해야 하는 點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래 이런 문제가 採擇된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에 本來부터 關心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研究하시는 여러분 가운데서 특히 여기 나오신 선생님들은 여러 모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심포지움은 여러가지 뜻하지 않은 事情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變更 되었읍니다. 主題는 아무리 좋다고 하드라도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프로그람에 있는 것과도 조금 달라졌읍니다. 첫째로 司會에 李相佰이라고 되어 있읍니다만 李相佰先生님이 못 나오시고 하여 제가 司會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洪以燮氏가 못 나오셔서, 우선 柳洪烈 先生님께서 '近世 天主教徒의 西洋觀'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 金龍德 先生께서 '東學에서 본 西學'을 말씀해 주시겠읍니다. 거기에 이어 李光麟 先生, 韓沽劤 先生의 討論이 있을 것입니다. 勿論 討論은 두 분의 이름이 나와 있지만, 두분께서 仔細한 討論과 評과 其他 疑問 質問等 여러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분들에게만 限定되는 것이 아니고, 앉아 계시는 누구든지 質疑와 討論에 參加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오늘 時間 本來의 豫定은 한 분에 30分씩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말씀드린 事情에 依하여 조금 더 지나도 相關없겠읍니다.

元來 생각은 한데 분가량 모실 생각을 했었고 또 그렇게 豫定되었었는데 부득이 事情이 생겨서 미안한 점이 있읍니다마는, 이 두 분께서 오래 研究하신 만큼, 거의 아마 못 나오신 분에 對한 補充的인 內容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近世 天主教徒의 西洋觀

柳 洪 烈

題目이 '近世 天主教徒가 본 西洋觀'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프린트에는 좀 題目을 바꿔서 '迫害期에 있어서의 天主教徒가 본 西洋觀' 이렇게 붙였읍니다. 勿論 天主教徒가 나타나게 된 것은 1783年에 李承薰이가 北京에 가서 Gouvea 神父에게 洗禮를 받고 돌아와서 南人學者 丁茶山以下 同僚들에게 洗禮를 주고, 1785年에 教會가 創設된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一部 信仰을 가진 사람들은 있었읍니다만, 本格的으로 教會를 세운 것은 1785年이고 이후 1886年에 佛蘭西와 條約을 맺어 1887年 그 條約이 批准되었는데, 그 中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으나, 佛蘭西人들이 우리나라와 通商 修好함에 있어 西洋의 法學이나 기타 學理 學術을 가르칠 수 있다는 條項이 들어 있었읍니다. 美國과의 條約이 1882年에 맺어지고 이어서 英國 獨逸 러시아 이태리 등과 맺어지고 마지막으로 佛蘭西와 1886年에 맺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外國과의 條約이 佛蘭西는 왜 이렇게 늦게까지 끌었느냐 하면, 佛蘭西와의 條約文에는 우리나라에 宣教團을 派遣하기로 되어 있어, 앞서 美國이나 日本과 맺은 條約과는 性質上으로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佛蘭西와 條約을 맺는 데 있어 우리 側이 특히 主張한 것은 宗教의 自由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읍니다. 우리나라에 1880年에 와서 1884년에 佛蘭西에 돌아간 Ridel 神父가 佛政府側과 協議하여 우리나라와의 條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宗教의 自由를 規定짓는 條項만은 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佛蘭西人이 우리나라에 와서 居住地를 갖고, 우리나라 땅을 빌려 집을 지을 수가 있음은 勿論 朝鮮人들에게 西洋의 學術을 가르칠 수가 있다하는 教誨의 두 글자를 넣었읍니다. 우리